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8월 31일(일) 제1554호



올해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며 '파더블레싱 2025'를 개최했다.

## 열방에 복음과 사랑을 남기다!

여름 아웃리치 국내외  
320개 팀 6,557명 참가

2025 여름 아웃리치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열방에 복음과 사랑을 남겼다. 7월과 8월 이어진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외의 320개 팀 6,557명이 참가했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성인공동체 34개 팀 1,054명, 대학청년부 136개 팀 2,951명, 차세대 22개 팀 420명이 참가했다. 제주, 태안, 춘천 등지에 있는 교회와 군부대, 마을 회관 등을 찾아가 집회, 캠프, 음식 대접 등을 했다.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37개 팀 642명, 대학청년부 63개 팀 971명, 차세대 28개 팀 519명이 참가했다. 미얀마, 일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지에서 선교사를 위로하고, 현지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진료와 노방 전도 등을 했다.

이제 아웃리치 은혜와 감동을 성도들과 나누면 된다. 8월 31일까지 미디어본부에서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릴스, 숏츠 등 60~90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 또는 공식 계정(@onnuriacts29) 다 이렉트 메시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응모하면 된다.

### 11월 첫째 주 '열린순예배'

11월 첫째주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순에서 기획 및 실행한다.

열린순예배는 그동안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나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과 친구, 지인과 동료들을 초대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자리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열린순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린순예배 <가이드북>' (QR 참고)이 순장들에게 배포된다. 열린순예배에 관한 상세한 실행 방법을 두 가지 버전으로 참고할 수 있다. A타입은 38분, B타입은 85분 소요된다.



/ 홍하영 기자

###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 9~10월 'CGN 정기후원의 달'

선교 미디어 CGN이 9월과 10월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정기후원의 달을 보낸다. 9월 20일(토)과 21일(일)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후원 및 약정 행사를 개최한다. 정기후원 모금 방송도 한다. 김재원 아나운서와 개그우먼 김효진이 사회를 보며 CGN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알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비전과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한다. 문의: 02-796-2243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 올해 두란노아버지학교 창립 30주년 '파더블레싱(father blessing)2025' 개최

올해가 두란노아버지학교 창립 30주년이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파더블레싱(father blessing)2025'를 8월 30일(토) 오전 11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했다.

파더블레싱2025는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자와 봉사자,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제였다. 국내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자발적 모금해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뉴질랜드, 루마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해외 27개국 두란노 아버지학교 현지인 봉사자 199명을 초청해 더

욱 뜻깊었다.

파더블레싱2025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눠 진행했다. 사전행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아버지학교 체험하기', '아빠는 12살 때 놀이', '오픈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본행사에서는 '감사'를 주제로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소망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두란노어머니학교의 특송, 크룩스와 광주아버지학교 파하모니 합창단 특

순 등도 이어졌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최성완 이사장은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지난 30년간 기쁨 부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세상 모든 아버지가 가정을 바로 세우는 복된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1995년 창립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내외에서 아버지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버지 운동'을 펼쳐왔다. 현재 국내 74개 지부, 국외 7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자가 현재까지 44만 명에 이른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하비스트 이주민 추석연합수련회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온누리M미션에서 10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하비스트 이주민 추석연합수련회' (이하 하비스트)를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하비스트에는 'Renewal(갱신)'을 주제로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회복을 꿈꾸며 온 누리 이주민 형제자매들이 모인다.

특히 10월 5일(일) 오후 파주 영산수련원 야외공간에서 'Mini Nations Tour'를 한다. 참가자들이 나라별 전통놀이를 하고, 바비큐를 먹으면서 총 14개국 부스를 투어한다. 전통의상, 사진, 지도, 언어, 다과 등을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각 나라 문화와 영적 상황을 소개하고, 교제하는 축제의 장(場)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봉사자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 봉사자들도 각 나라 문화와 민속놀이를 함께 경험

할 수 있다.

하비스트 집회 시간에 다문화 차세대들은 어린이 캠프를 한다. 찬양대회와 야외 활동을 하는데 차세대들을 섬길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주차 봉사, 안내, 예배 봉사(자막, 테이블 셋팅, 예배팀 섬김 등) 분야에서도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집회 기간 내내 섬길 수 있고, 당일 봉사도 가능하다. 봉사자 신청을 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9월 13일(토) 자원봉사자 교육을 한다. 자원봉사 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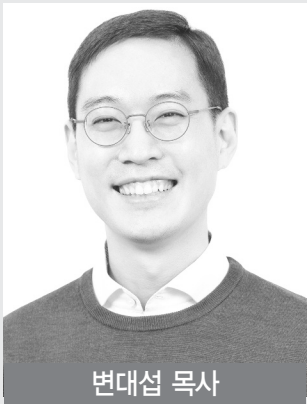
문의: 031-491-9650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일강단



변대섭 목사

신앙생활을 흔히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 승리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와 실패한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여리고 성 전투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십시오(3-5절). 여리고 성 전투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그리 크지 않은 중간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둘레가 약 600미터, 인구는 1,5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4미터 정도의 견고한 안팎 이중성벽이 있었고, 그 안에 샘이 있고, 중요한 교통로의 접점에 위치해서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요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닫혀있었고, 절대 방비 태세를 갖춘 성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성벽을 부수는 공성 전법이나 성벽에 틈을 만들어 공략하는 기습 전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지도 않을 ‘매일 성을 한 바퀴 행진하라’는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법궤를 동반한 일주일 행진 전술,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섞은 음성 공격, 터무니없이 보이는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에 그대로 복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하도록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움직였고,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따를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순종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지를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신 8:2).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배워왔던 순종이 적용되고 펼쳐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했지 그 내용이 적절하고 내 생각에 맞는지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돌아라”라고 하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지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 여주면서 주도권을 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승리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여호수아가 곧장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10절).

“외치지 말라”는 명령은 ‘환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질서한 환호성, 들쭉날쭉하게 웅성거리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낮은 소리와 작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행진하는 동안 군인들끼리 두런 두런 이야기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한 침묵을 요구한 이유는 이 전쟁이 주는 거룩함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엄숙히 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일곱 번을 돌고 나서 양각나팔이 조금 길게 울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정확히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온전히 붙잡길 바라는 마음에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절실함으로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결단과 몰두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

# 거룩한 전쟁

여호수아 6:1~20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도록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반드시 여리고 성 승리와 같은 영적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중하도록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들리는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중심으로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질 것이며, 그분의 말씀과 길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거나 하나님의 길을 묻거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오롯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 “끝까지 믿음의 선택만 하십시오”

셋째, 끝까지 믿음의 선택만 하십시오. 마지막 일곱째 날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과 함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16-19절).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입니다.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질 것을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라합과 그 일행을 살려라’입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진멸하되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여호수아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선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은 이미 그의 시선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라합의 구원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가나안 땅 족속의 진멸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앞에 놓인 절대적 순종의 과제였습니다. 실제 이 세 가지가 여리고 성 전투의 핵심적인 의미가 됩니다. 함성을 지른 즉시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취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6장에서 세 번이나 강조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따로 정탐꾼들을 불러서 라합의 집에 즉시 가서 그녀와 그 가족들을 구하라는 개인적인 명령을 부여합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요, 이 믿음으로 인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는 여인 중 한 명이 됩니다.

여리고 성의 진멸 또한 중요한 결과를 남깁

니다. 이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한 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심판과 그로 인한 교훈이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초점과 그 집중력에 주목하십시오. 거룩한 전쟁은 신앙생활 내내 지속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해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구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히 12:3).

지치지 쉽고 피곤해지기 쉬운 우리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가 ‘시간’이라는 공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믿음의 걸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치열함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우상이 더 강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걸음이 지쳐서 낙심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거룩한 전쟁,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깊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 수 있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거룩한 전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전가가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명확하게 들리도록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반드시 여리고 성 승리와 같은 영적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르포 메디엑세스&amp;송파B공동체 인도네시아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라파·마노아·마하나임·토브)와 송파B공동체가 함께한 6박 7일 인도네시아 람퐁 연합 아웃리치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 8월 14일(목)부터 20일(수)까지 70명(메디엑세스 40명, 송파B공동체 30명)이 인도네시아 람퐁에서 의료와 문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람퐁 뿌루위끈조노마을 초등학교가 병원으로 변했다. 책상에는 청진기와 약품이 놓였고, 아이들이 앉던 작은 의자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산부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심장내과, 감염내과, 치과, 성형외과, 한방(침)과 등 진료실은 쉴 새 없이 북적였다. 진료가 한창이던 그때, 한 젊은 산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24살 어린 산모 뿌뿌리였다. 생전 처음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하고 감격에 젖었던 그녀가 긴장이 풀린 탓인지 과호흡 발작을 일으켰다. 그 순간, 메디엑세스 의료진과 목회자, 봉사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신속한 응급처치와 간절한 기도가 동시에 시작됐다. 처음에는 “저는 무슬림입니다(I'm Muslim)”라며 기도의 손길을 거부하던 뿌뿌리와 가족들이 산모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자 이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와 산모, 두 생명을 모두 살렸습니다”라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메디엑세스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단순한 의



뿌루위끈조노 초등학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NGO 메디엑세스와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진들.

료 지원을 넘어 현지 의료진과 교류와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메디엑세스 소속 의료진은 마르디와루요 병원 현지 의료진과 함께 환자를 돌보며 선진 의료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이학일 장로(서초B공동체, 메디엑세스 이사)와 함께 진료에 참여한 현지 의사 엘리자베스는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약을 처방하는 기준까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학일 장로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장로는 “엘리자베스는 매우 똑똑

하고 탁월한 의사”라면서 “현지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도록 의료 기기 지원과 교육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엑세스는 국제 의료 NGO로써 현지 병원 역량 강화와 빈곤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에도 힘썼다. 그 하나의 과정으로 마르디와루요 병원에 당화혈색소 분석기를 기증했다. 마르디와루요 병원은 2006년부터 20여 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관계를 맺어 온 인도네시아 기독교병원이다. 메디엑세스의 현지 병원 강화 사업 시범 사업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메디엑세스는 현지 의료진 교육과 실질적인 지

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송파B공동체는 마르디와루요 병원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과 노래하며 놀아주고 복음을 전했다. 바뚜바다마을에서는 현지인 가정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했다. 바뚜바다마을 운동장에서 풍선으로 칼과 왕관, 꽃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송파B공동체가 준비한 ‘러브소나타인 람퐁’도 감동이 넘쳤다. 마르디와루요 병원 직원과 가족을 초대한 이 문화 공연에서는 한 달 넘게 준비한 중창, 합창, 위িশ, 무언극, 발레 등을 선보였다. 현지인들이 공연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터뜨리기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다양한 배경의 동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선교의 길이 완성됨을 이번 람퐁 연합 아웃리치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의료진뿐 아니라 다양한 성도와 교회, 병원이 연합해서 이뤄낸 7일간의 여정은 인도네시아 람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은혜의 단비’를 선물했다. 그 여름, 람퐁에서 만난 하나님과 은혜면 우리는 충분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아웃리치 사진&영상

## 이촌공동체 몽골 선한이웃교회

## 몽골 게르 안에서 울려 퍼진 회개의 고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이촌공동체 김종호 목사와 한필규 장로를 비롯한 26명은 8월 14~18일 4박 5일간 몽골 울란바타르 북서쪽 다리이흐 지역을 방문해 선한이웃교회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이광수·더기 선교사 부부를 위로하고, 가정방문 전도와 차세대 예배, 다양한 경기와 게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첫날, 팀은 선교사 간증을 들은 뒤 교회 주변을 돌며 땅밟기 기도를 드렸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파하며 몽골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길 선포했다.

가장 큰 은혜는 가정방문이었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들고 15가정을 찾아 복음을 전했다. 아이들과 노인, 부모세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한 게르에서는 다섯 아이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따라 했고, 또 다른 집에서는 80대 할머니와 50대 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전도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주일예배에서는 ‘나의 피난처 예수’를 몽골어와 한국어로 함께 찬양했고, 오키리나로 연주할 때 이곳 성도들이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



한필규 장로 등이 한 게르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 지난 10주 이상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몽골어 찬양을 연습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

송파A공동체와 연합한 캠프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년들이 몰려와 이어달리기, 성경퀴즈, 농구를 즐겼다. 아이들이 말씀을 줄줄 외워서 기뻐했다. 선한이웃교회가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차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선교사는 몽골 차세대를 믿음의 군사로 세워 복음화의 기마병으로 삼는 비전을 갖고 있다.

김종호 목사는 말씀으로 차세대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꿈과 비전을 제시했다. 사계오 이야

기(눅 19:5)를 통해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강조했다. 다윗의 기쁨 부음 사건(삼상 16:7)을 통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몽골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다.

한필규 장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귀중하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한이웃교회가 차세대 예배와 양육에 힘쓰는 것은 의미

가 있다”면서 “이들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몽골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교의 초점도 차세대에게 뒤야 함을 보여준다.

사역 마지막 날,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이촌과 송파공동체 팀원들이 모여 선교사 부부를 위한 블레싱을 가졌다. “처음 몽골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심이 모욕을 받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성령님이 ‘정말 진심이었느냐’ 물으실 때 다시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라는 선교사의 고백은 모두를 눈물짓게 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시 126:5) 말씀으로 위로하며 축복송을 불러 주었다.

이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사명도 나눴다. “광에는 미칠 광(狂)자가 있고, 수는 한 자에는 없지만 ‘예수 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미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합니다.”

몽골은 불교와 샤머니즘이 강하고 기독교인은 1%에 불과하다. 아웃리치를 통해 복음의 작은 씨앗이 심겼음을 보게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약속이 다리이흐에서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 이의춘 다락방장(이촌공동체)

갈렙청년부  
제주도 용수교회

갈렙청년부가 제주도 최서쪽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용수교회’를 다시 찾았다.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와 겨울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다. 매년 낯설기만 했던 길들을 익숙하게 걷고, 마을 어귀에서 반겨주는 얼굴들이 정겹게 느껴졌다. 이러한 변화가 이 여정이 짧은 기간 왔다가는 단기선교나 아웃리치가 아니라 ‘관계의 사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올해 여름에는 청년 15명이 팀을 이뤄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제주도 용수교회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로, 성도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청소년은 10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 우리가 용수교회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거나 무엇인가를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용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초복을 맞아 ‘마을잔치’를 열었다.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으로 초청해서 삼계탕을 대접하고, ‘햇살공 전도트럭’에서 음료를 제공하며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시던 어르신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고,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작년에도 왔지? 너 기억난다”고 말씀해주셨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헛되지



갈렙청년부가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잔치를 열었다.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용수교회 주일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밴드와 합창을 연습하면서 주일 예배 특송을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다. 연습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몰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 특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임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마을 전도’와 ‘CGN과 함께한 영화 ‘무명(無名)’ 관람’이었다. 마을 전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하고, 그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기적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하지만 세 번째 방문이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알아주셔서 수월했다. “올해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실 때 무척 감사했다.

주민들과 함께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하는 시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다. CGN에서 용수교회 성도님들의 영화 관람 비용을 전액 후원해 주셔서 상영회를 할 수 있었다. 상영회는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만나는 자리였다. 차량으로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태어나서 처음 영화관을 방문하고, 영화를 관람한 성도님들도 계셨다.

복음화율이 10%가 되지 않는 제주도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아웃리치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그곳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제주도 용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다. 이번 사역에 동참해주신 팀원들과 CGN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심은 사랑의 씨앗과 흘린 눈물, 그리고 함께한 찬양과 기도가 분명 열매 맺을 것이다. 이 사역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최인현 형제  
(갈렙청년부)

에클레시아&경기A공동체  
안산M센터

지난 8월 1~3일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기독교동아리 ‘에클레시아’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온누리M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치과 진료봉사를 했다. 이번 사역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선 것이었다. 복음을 품은 미래 예비 의료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진료 현장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 사실 에클레시아에서는 최근 무의촌(無醫村) 사역이 점차 줄어들고, 복음을 함께 나눌 진료 현장이 사라지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새로운 선교와 봉사의 길을 찾고 있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모색 중이었는데 마침 이재훈 위임목사님으로부터 온누리교회의 다문화 선교 비전을 접하게 되었다. 그 후 김태완 목사님(안산M센터 담당)을 소개받고 협력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역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

8월 1일, 첫날 에클레시아 사역팀은 안산에서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지역을 둘러보면서 다문화 현장을 체험했고, 땅 밟기와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준비를 하며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치과 진료를 시작했다. 이틀 동안 외국인 환자 120여 명을 진료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산M센터를 찾아와 치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단순한 스케일링 정도가 아니었다. 충치 치료와 발치 등 환자들에게 필요했던 실



연세대 치과대학 기독교동아리 ‘에클레시아’와 경기A공동체가 안산M센터에서 연합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질적인 치과 치료가 이뤄졌다. 진료에 참여한 본과 2~4학년 학생들은 외국인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해 환자 상태를 묻고 또 정성스럽게 진료로 돌보았다. 환자는 많고 진료가 원활히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섬김과 인재를 배웠다.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낯선 환경과 문화, 언어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 속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학생들은 신앙과 사명에 새로운 눈을 떴다. 복음은 그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진리임을 몸소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는 경기A공동체가 동참했다. 성도님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실 앞과 복도 한편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나누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경기A

공동체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풍경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역은 정말 특별했다. 의료와 선교가 하나 되어 흘러가는 현장에서 진정한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 한국 사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외국인 이웃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다. 선교는 먼 나라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번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다.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 정성 어린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 선교이다. 복음과 진료가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현장을 직접 목도했다. 앞으로 온누리M센터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더욱 친밀한 협력과 동역을 기대하며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필자와 에클레시아는 앞으로 복음을 품은 의료인의 길을 굳게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다시 세웠다.



이재훈 성도  
(OCC공동체)

## 복음과 진료가 만나다!

#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성경 정독(精讀)의 필요성과 그 방법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는 일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하도록 권면하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나 성경 필사

운동을 운영한다. 교회마다 1년 1독을 목표로 삼거나 새해 첫날부터 함께 필사를 독려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시중에는 성경 통독을 빠짐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앱이나 도서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성경 정독(精讀)을 권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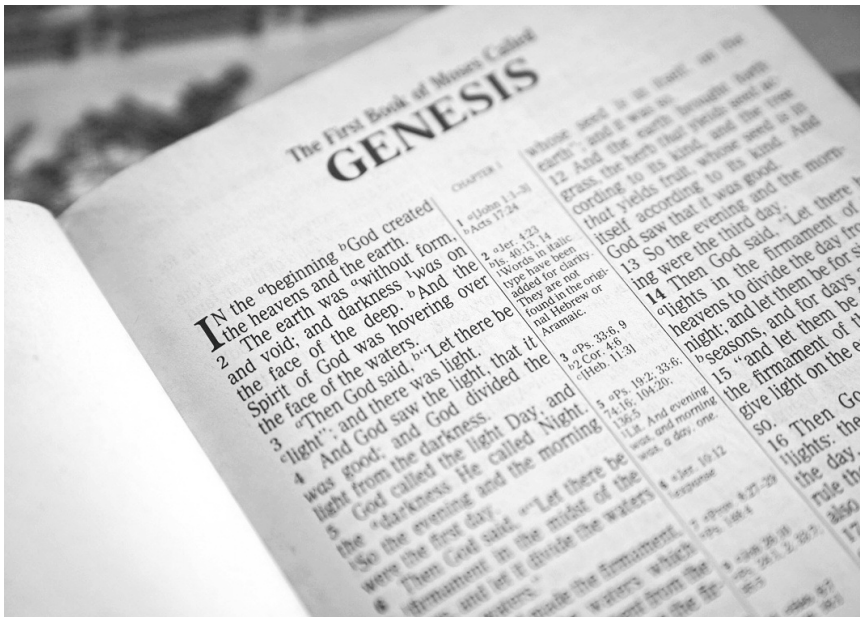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성경 통독을 통한 다독을 권장한다. 또 성경 필사는 후손에게 전해줄 믿음의 유산이라 생각하기에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정황하고, 정결하게 쓰기 위해 노력한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기 보다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바르게 쓰는지에 힘을 쏟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통독이나 필사를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순히 양을 채우거나 기록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과연 통독이나 필사만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특정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 이젠 ‘다 아는 내용인데’ 하고 의미를 깊이 생각지 않고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마치 중학생이 학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운 다음 정작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전에 들었던 내용이야’라고 흘러들다가 결국 깊은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이 바로 선행학습의 폐해이자 성경 통독의 위험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익숙함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양으로 승부하는 신앙 습관을 넘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 성경 정독의 필요성



“성경 정독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성경 통독을 통해  
큰 흐름을 붙들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정작 성경을 차분히 보면 읽어나가기 쉽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분량 때문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깊고 신비롭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쉽게 읽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를 함께 다루며, 비유와 예언이 가득하다. 셋째, 언어적 차이 때문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을 번역해 읽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넷째, 시대적 간극 때문이다. 성경이 쓰인 수 천 년 전 정치·경제·문화적 배경과 오늘 우리의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대중 눈으로 훑어 읽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학자가 전공 서적을 읽을 때나 회사에서 계약서 검토할 때 대중 읽는 사람은 없다. 본문만 철저히 보는 게 아니라 참고문헌까지도 찾아 읽고, 계약서의 숫자나 토씨 하나까지 검토한다. 전공 서적이나 계약서도 이렇게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하물며 성경을 읽으며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성경 통독이나 필사로 가능하겠는가? 성경을 정독해도 어려운데 정독 한 번 하지 않고 통독으로 다독한다고 성경 내용을 잘 파악할 수는

없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이다. 그렇기에 피상적으로 지나가면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다.

### 성경 정독 방법

그렇다면 성경 정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한 글자씩 천천히 읽는 게 성경 정독은 아니다. 성경 정독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동시에 구체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 학창 시절 국어 시간에 교과서를 읽으며 문단을 나누고 주제를 찾던 것처럼, 성경 말씀도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찾고, 문맥의 흐름을 살피며, 등장인물과 지명을 연결해 읽어야 한다. 특히 대명사가 등장할 때,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사전, 주석, 인터넷 검색을 활용할 수도 있다. 요즘은 다양한 번역본과 성경 앱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내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특정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자. 출애굽 이후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가 아니면 출애굽 1세대의 불평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표지인가. 만약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정탐꾼을 보내고 기다렸던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과 정반대로 혹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들도 많이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독해야 한다. 기존의 익숙한 해석에서 벗어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정독하며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나 문장은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좋다. 히브리어를 알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좋겠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어려우므로 다양한 영어 역본을 참조해서 대조해 보거나 성경 사전, 때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정독과 통독의 균형

성경 정독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복할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정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정독을 통해 말씀의 뼈대를 이해했다면, 그다음에는 성경 통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

성경 정독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라면, 성경 통독은 숲 전체를 조망하는 과정이다.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번의 정독 이후, 통독을 통해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은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없는 입체적 텍스트다. 정독과 통독이 서로를 보완할 때,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맞출 수 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나 기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성경 정독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성경 통독을 통해 큰 흐름을 붙들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단순히 ‘읽었다’는 성취감에 머물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우기를 소망한다.

## ‘오늘, 예수 안에 살다’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작품 24점 당선



두란노서원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열린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에서 작품 24점이 당선됐다. ‘오늘, 예수 안에 살다’를 주제로 열린 이

번 공모전에는 980명이 참가해 작품 2700여 점을 접수했다. 당선작은 〈생명의 삶〉 홈페이지(www.durannooqt.com)에 한 달 동안 게시하고, 2026년과 2027년 〈생명의 삶〉 표지로 활용한다. 아래는 최우수상 전세영 성도(성심교회) 수상 소감.

“2년 전 입선만으로도 큰 기쁨과 영광을 누렸는데,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수상은 제게 특별한 위로와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풍경 사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진을 포기하셨던 아버지께 제가 찍

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사진은 동생 집 36층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탁 트인 전망과 그 속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길을 끌었고, 찰나의 순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연을 좋아했지만, 사진을 찍으며 좀 더 섬세하게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에 따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노을빛과 구름 모양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매일 아름답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따뜻한 응원과 격려,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가족과 귀한 기회를 주신 두란노서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전도폭발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서빙고 9월 1일~12월 1일,  
양재 9월 5일~12월 7일

전도폭발훈련학교 서빙고 월요일 간반과 월요일저녁반, 양재 주간반과 주일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는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간반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서빙고 콘서트홀, 저녁반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양재 주간반은 9월 5일에서 12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양재 JDS홀, 양재 주일반 9월 7일부터 12

월 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킹스채플교회(서초구 논현로175 신한빌딩)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9월 15일까지, 양재 주간반 9월 11일, 양재 주일반 9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서빙고 월요일주간반(010-3801-1215) 서빙고 월요일저녁반(010-4211-0163) 양재 주간반(010-4041-5368) 양재 주일반(010-2739-4433)

## 통일선교학교 3기 수강생 모집

9월 20일~11월 15일 매주 토 오후 7시 30분

통일선교학교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10월 4일 휴강). 참가신청은 구글폼(QR코드 참고), 아이스쿨,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성별, 소속, 출생년도,

교재 수령 주소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회비는 3만 원(교재포함, 아웃리치 2만 원 별도). 통일선교학교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주제의 강의, 현장 아웃리치, 토크쇼가 이어진다. 수료하면 2학점이 부여된다.

문의: 010-2951-1322



## ‘휘튼가스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9월 18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 Wheaton Gospel Academy)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8일(목)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다. 2년 4학기 운영한다.

학비는 학기당 250만 원(온라인으로 수강하면 200만 원)이다. 온누리교회 및 복음과도시 이사교회 성도, 2학기 선납, 2명 이상 동반 등록하면 각 항목당 5%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에 등록하려면 8월 31일(일)까지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 홈페이지(www.wheatonga.org)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우편이나 이메일(wheatongospe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867-8425

/ 홍하영 기자

## 2026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2026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받는다. 9월 16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추천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할 수 있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포함).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약금 2백만 원(당일 이제 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등록교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증명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예비신랑, 신부가 타 교회 성도일 경우에는 소속 교회의 등록교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성찬용 포도즙을 담근다. 서빙고온누리교회 9월 1일(월)과 2일(화), 양재온누리교회 9월 2일(화) 교회 식당에서 제조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성찬팀과 임직 봉사자, 양재온누리교회 권사회와 성찬팀, 임직 봉사자가 참여한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 8월 세례

|            |            |
|------------|------------|
| 대학청년       | 임지환 970816 |
| 허브         | J4U        |
| 박민서 010802 | 손대윤 940704 |
| 표영민 010903 | 문규희 970121 |
| -임교        | -임교        |
| 강세민 060328 | 윤경배 981006 |
| 고혜린 000114 | 육세민 911008 |
| 김성은 981009 |            |

## 어르신 초청 한강 크루즈 여행

서빙고 이웃사랑팀과 어르신 등 47명 참석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지난 8월 23일(토) 홀몸 어르신들과 한강 크루즈 여행을 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 백종신 장로(성북공동체), 홀몸 어르신 등 47명이 참석했다. 이번 어르신 초청 한강 크루즈 여행은 하랑센터가 협력하고, 이랜드 재단이 후원했다.

이철원 팀장(서빙고이웃사랑팀)

은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부 행사를 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주를 ‘구제봉사주일’로 정하고,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 섬기고 있다. 문의: 02-3215-343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9월 6일~10월 25일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개강한다.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0분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13일(토)까

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비 별도).

‘Why Mission?’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228-5798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NGO 더멋진세상 네팔지부, ‘말씀 공부 모임’ 인기

NGO 더멋진세상 네팔지부 말씀 공부 모임이 인기다. 총 9개 그룹, 112명이 기본 과정과 양육자 과정을 동시에 수료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과정을 종료하고, 11월에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지역 주민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모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화합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문의: 02-2271-2246



## 전도폭발훈련학교 아웃리치...

전도폭발훈련학교가 지난 8월 14일(목)~18일(월) 대만 타이베이 네이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현지 11개 교회와 연합해 전도폭발훈련 및

전도실습, 1천2백여 명 규모의 문화전도집회를 개최했다. 대만 현지 중학교와 심파오교회에서 부채춤, 판소리 및 해금 연주, 플루트 연주, 한국 단기선교단 대학생 Pole2 무연극 및 간증, 발레, 축복기도 등도 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illegible]

WHEATON  
COLLEGE  
For Christ in the Kingdom

휘튼대학교

1860년에 설립한 휘튼대학교는 깊이 있는 신학적 전통과 탁월한 학부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를 이끄는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복음주의 글로벌 리더의 산실입니다.

N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



# “건전한 신학, 깊은 신앙, 바른 삶 WGA와 함께 시작하세요!”

## WGA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는 휘튼대학교와 복음과도시가 함께 만든 신학 교육 기관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성도들에게 복음 중심의 건전한 신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WGA 수강생에게만 주어지는 특전

### 한국 교계 원로 멘토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멘토링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  
2025~26년 겨울, 유기성 목사(위지엠, 선한목자교회 원로), 조봉희 목사(서울지구촌교회 원로), 박은조 목사(한동대학교 교목실, 은혜샘물교회 원로)와 함께하는 시간 확정

### “휘튼대학교 및 미국 복음주의 교회 탐방”

- 휘튼대학교 총장과의 만남 및 캠퍼스 투어
-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 탐방
- 미국 현지와 연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 제공

### 1학기 주요 강의

Divine Revelation and the Trinity\_Keith Johnson  
Creation and the Kingdom\_Keith Johnson, Rick Richardson  
언약과 하나님 나라\_이재훈 목사  
바울의 심장소리:사도가 남긴 복음의 정수(로마서)\_이인호 목사  
교회에 침투한 가짜복음(기독교 이단)\_김다위 목사 외

## 개요

개강.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7시  
강의. 매주 목요일 13주간 저녁 7~10시(공휴일 휴강)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헛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간. 2년 4학기  
학비. 학기당 2백50만 원(온라인으로만 수강시 2백만 원)

## 등록금 할인 제도

투게더 5%(두 명 이상 함께 등록)  
포워드백 5%(두 학기 선납)  
복음과도시 이사 교회 5%,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 등록 안내

7월 10일~8월 31일



유기성 목사



조봉희 목사



박은조 목사

Keith Johnson 교수  
휘튼대학교 신학과Rick Richardson 교수  
휘튼대학교 신학과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김다위 목사  
선한목자교회